

의료보험통합의 의미와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

금년 7월 의료보험이 통합체제로 출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역사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한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보험통합은 이와 같은 원리를 실현하여 중산층 중심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의료보험의 역사는 통합방식과 조합방식간 논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료보험통합은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1989년에는 통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한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노사가 통합에 합의하였고, 작년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합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결국 20여 년에 걸친 의료보험의 역사에서 국민은 '통합'이라는 사회적 연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보험 통합을 선택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첫째, 조합방식으로는 계층간, 집단간, 지역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합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0월 지역조합간 1차 통합에서 저

의료보험은 새천년이 시작하는 금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그동안 통합과 조합간의 논쟁으로 미루어져왔던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소득자의 보험료는 인하되었고,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인상됨으로써 농어민 등 서민의 보험료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금년 7월 직장조합 통합으로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의 보험료는 인하되었고, 고소득·대기업 근로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결국 의료보험 통합은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의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며, 남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나눔의 정신이 그 생명입니다.

둘째, 조합방식하에서 조합간에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만성적으로 적자조합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과거에는 보험급여 수준을 재정이 어려운 조합에 맞추다 보니 전체적으로 의료혜택이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합은 보험재정이 허락하는 한 급여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조합방식하에서 자격이 변동될 경우 조합간에 자격의 연계가 미흡하던 문제를 통합방식하에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해결하게 되었고, 아울러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은 새천년이 시작하는 금년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통합과 조합간의 논쟁으로 미루어져왔던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선 여전히 환자의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 및 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진료비의 급증에 따라 악화되는 보험재정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세당국과 협조하여 자영자에 대한 소득과약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민에 대한 공평한 보험료부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건강보험 조직이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다 전문화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제도는 탄생한 이후 이제 만 23세가 되는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곳곳하고 성숙된 모습의 청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은 안정되고 순탄한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도전과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청년정신』으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